

2024. 5. 22.(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저출생정책추진반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저출생정책추진반장	주재완	2133-5320
저출생정책팀장	홍기영	2133-5321
아이돌봄담당관	박희원	2133-4801
돌봄정책팀장	이동주	2133-4802
관련 누리집	umppa.seoul.go.kr (몽땅정보만능키)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 14쪽

## 서울시, '웰컴키즈 안심보험' 전국최초 출시... 양육자 편한외출 지원 확대

- 연 2만 원으로 매장 내 안전사고 시 최대 2천만 원 보장 '웰컴키즈 안심보험' 전국 최초 출시
- 서울형 키즈카페, 가족화장실 등 편한외출 지원시설 2026년까지 총 1,555개소 조성·지정
- 이용자 16만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 연내 130개소 확대, 주말 운영시간 8시까지 연장
- 10명 중 9명 만족한 '서울엄마아빠택시' ...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 확대 운영
- 서울뮤직페스티벌(9월) 등 축제·행사장에 '현장형 VIP존 및 가족화장실' 운영해 편의↑

# 21개월 자녀를 둔 A 씨 부부는 얼마 전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타고 서울월드컵 경기장에 축구 경기를 보러 갔다. 경기 전 미리 예약해둔 '서울엄마아빠VIP존'에 가기 위해 전용 게이트로 입장한 후 '서울엄마아빠VIP존'에서 아이와 쉬면서 놀다가 경기를 관람했다. 경기가 끝난 후엔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키즈 메뉴, 아이용 식기류가 있어서 아이도 만족했다. 지난 주말엔 한강공원에 놀러갔는데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족화장실'이 있어서 외출 걱정을 크게 덜었다.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좀 더 편하도록 양육자 편한외출 지원시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첫 번째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전사고 우려 때문인 만큼, 음식점이나 카페 사장님이 연 2만 원대로 들 수 있는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전국 최초로 출시한다. 영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서울 소재 16만 모든 일반·휴게음식점이 대상이다.
- 또한, 양육자의 편한외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16만 명을 돌파한 ‘서울형 키즈카페’를 필두로, 3만9천여명 양육가정이 이용한 ‘서울엄마아빠택시’, 아이 동반 손님이 편하게 외식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 휴식·놀이·수유·돌봄 등 육아편의를 제공하는 ‘서울엄마아빠VIP존’, 남녀 구분 없이 영유아 동반 엄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화장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총 708개소(‘24.5. 기준)를 서울 전역에 조성(지정)해왔다.
- 더 나아가 2026년까지 ‘서울키즈 오케이존’ 1,000개소, ‘서울형 키즈카페’ 400개소 등 총 1,555개 편한외출 지원시설을 조성(지정)하여 양육자와 아이 모두 즐겁고 편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 2만 원으로 매장 내 안전사고시 최대 2천만 원 보장 ‘웰컴키즈 안심보험’ 전국 최초 출시>

- 우선, 서울시는 음식점 또는 카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을 출시한다. 보험 가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후 7월 중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 현재, 규모 100㎡ 이상 음식점 등\*은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하지만, 안전사고로 인한 법률상책임관련 담보, 치료비 등은 특약사항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들의 피해배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 대상 : 1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미술관 등 20여 종의 시설

# 서울 도봉구에서 베이커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이○○(52세) 씨는 최근 매장에 마련된 나무의자에 아이동반 가족이 착석했다 의자의 이음새가 빠져 뒤로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카페 내 시설물 설치사용에 있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이에 대해 백만 원이 넘는 손해액을 지불하게 됐다. 이 씨는 베이커리 수익이 월 2~3백 겨우 나오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니 너무 힘들었다며 영업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 ‘웰컴키즈 안심보험’은 음식점 또는 카페 등 영업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 치료비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시는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 아이 동반 손님을 꺼리는 분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민간 손해보험사(한화손해보험)와 함께 가입비 연 2만 원대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 시는 전체 손해보험사 대상으로 보험상품 제안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 4월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상품 운용사로 최종 선정했다.

○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100㎡ 기준 25,000원(휴게음식점 20,600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으로 ‘웰컴키즈 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소유관리자담보는 대인 1천만 원, 구내치료비담보는 대인 1인당 1백만 원, 종업원신체장해보장 1인당 1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 (시설소유관리자 담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음식점(일반, 휴게)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 (구내치료비 담보) 음식점 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종업원신체장해보장)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

## 〈‘웰컴키즈 안심보험’ 보상한도〉

담 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시설소유관리자	대인	1인당 1,000만 원, 1사고당 2,000만 원	10만 원
	대물	1사고당 500만 원	10만 원
구내치료비	대인	1인당 100만 원, 1사고당 100만 원	없음

※ 종업원신체장해보장특약 포함 (1인당 1,000만원, 1사고당 2,000만원)

□ 현재 589개소인 ‘서울키즈 오케이존’은 올해 7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업주가 신청하거나 자치구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발굴하는 기존방식 외에 양육자 추천 방식을 추가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시민이 음식점 등을 추천하면 업주의 의사,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서울키즈 오케이존’으로 지정된다. 시민 추천은 5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서울엠보팅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천을 통해 10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양육자 편한외출 지원시설 2026년까지 총 1,555개소 조성·지정〉

① 이용자 16만 돌파 ‘서울형 키즈카페’ 연내 130개소 확대, 주말 운영시간 8시까지 연장

□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서울가족플라자, 뚝섬자벌레 등 서울 전역에 75개소가 운영 중이며, 연내 총 130개소, 2026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1호점(동작 서울가족플라자 내), 시립 목동점(양천 키움센터 내), 시립 뚝섬자벌레점 등 시설마다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놀이 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2022년 5월 1호점 개관 이래 이용자 16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도 각각 97.6%, 9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립1호점은 서울 도심(빌딩미로숲, 남산케이블카)을 구현한 특색있는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시립 목동점은 가상현실(VR) 정보기술(IT) 기반 놀이

기구를 적용하는 등 초등학생 놀이 수요에 맞춰 초등학생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립 뚝섬자벌레점은 한강을 형상화한 놀이시설로 제공하고 있다.



시립1호점(387㎡)



시립 목동점(260㎡)



시립 뚝섬자벌레점(891㎡)

□ 올해는 다양한 콘셉트의 키즈카페가 연이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보라매공원 등 가족 나들이 명소뿐 아니라 키움센터, 종교시설, 아파트단지, 폐원 어린이집 등 생활 근거리에서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개성 넘치는 키즈카페를 만날 수 있다.

○ 보라매공원점은 공원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립 화곡점(강서 거점형 키움센터 내)은 키움센터와 결합한 초등학생 전용 키즈카페로, 상상·탐험·도전을 테마로 놀이공간을 조성한다.



시립 보라매공원('24. 하반기 개관)



시립 강서키움센터 결합형('24. 하반기 개관)

□ 특히, 주말 이용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주말 운영 횟수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더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립형 3곳(동작구 가족플라자 내 시립 1호점, 양천 키움센터 내 시립 목동점, 시립 뚝섬 자벌레점), 구립 1곳(용산 한강로동점)에서 주말 확대 운영 중이며, 순차적으로 서울형 키즈카페에 확대할 예정이다.

- ② 영아동반 양육자 이동편의 지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전 자치구 확대
  - 유모차, 장난감 등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영아와의 외출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5월 현재 3만9천여 명의 영아(24개월 이하) 양육가정이 신청할 정도로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서울엄마아빠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KC 인증된 카시트는 물론, 살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까지 설치되어 있으며, 영아 한 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 전에는 택시 타면 아기 짐 챙기랴 우는 아이 달래랴 힘들게 탑승했었는데, 서울엄마아빠택시이용 후에는 외출할 때 걱정이 없어요. 아기를 카시트에 안전하게 앉힐 수 있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닫혀 승·하차 시에도 불편 없이 탑승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또 기사님이 아기 유모차, 기저귀 가방 등 짐 싣는 것도 도와주시고 택시 내부에 공기청정기, 손소독제며 휴대폰 충전기에 이동하며 볼 수 있는 태블릿PC까지 짧은 이동시간이라도 지루함 없이 즐겁게 이동할 수 있었 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가족)

- 올해는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시행 중으로, 총 5만 가정을 지원할 계획인데 벌써 신청률이 78%에 달해 양육가정의 관심과 인지도가 높다. 또한 시는 예약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양육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예약 호출 시 내야 했던 1만 원의 예약 비용을 없앴다.
  - 지난해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후, 높은 만족도(92.2%)를 반영하여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 작년 만족도 조사 결과,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양육자 10명 중 9명(92.2%)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주로 방문한 곳은, 병원이나 약국 43.3%, 가족 모임 등 약속 24.5%, 공원 등 나들이 21.4% 등 순이었다.
  - 시는 7월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이용 가정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③ 서울뮤직페스티벌(9월) 등 축제 행사장에 ‘현장형 VIP존 및 가족화장실’ 운영



- 양육자와 아이의 휴식이 가능하면서 수유, 돌봄, 놀이 등 육아편의를 제공하는 전용공간인 ‘서울엄마아빠VIP존’은 고척스카이돔, 세종문화회관, 유아숲체험원, 서울상상나라 등 13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총 5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특히 이 가운데 ‘서울월드컵경기장’에 조성된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아이와 함께 편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전용 게이트 입장을 지원하고, 유아 미니축구존,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말 예약은 연일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양육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출산 후에는 여가생활이 사치라고 생각되었는데 ‘서울엄마아빠VIP존’으로 인해 삶의 질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도 좋아하는 팀 축구경기 응원하면서 아이들 케어도 할 수 있어 저희 부부와 아이들 모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일석이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시설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서대문구 거주, B 씨)

- 작년 11월에는 전통시장(방학동 도깨비시장) 최초 VIP존도 조성되었으며, 보육교사가 상주하여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서울가족플라자(동작구 대방동 소재) 내 ‘서울엄마아빠VIP존’은 아이를 맡기고 엄마아빠가 잠시 외출할 수 있도록 예약제로 시간제 돌봄 운영을 하는 동시에 매주 토요일에는 가족플라자 내 ‘서울엄마아빠VIP존’(3호)에서 백일·돌사진 촬영공간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육자들의 편한 육아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이런 인기를 반영해 올해는 각종 축제 및 행사장 내에 ‘현장형 VIP존’을 운영한다. 특히, ‘현장형 VIP존’과 ‘현장형 가족화장실’을 함께 조성해 대규모 인파, 자리 부족 등으로 아이와 함께 오기를 꺼렸던 양육자들이 좀 더 다양한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 앞서 시가 지난 4월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행사장에 ‘현장형 VIP존’을 시범 운영한 결과 이틀간(4.12.~13.) 천여 명이 넘는 양육자가 방문,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시는 다가오는 5월 25일 개최 예정인 ‘탄생응원 서울축제’ 및 9월 개최 예정인 ‘서울뮤직페스티벌’ 등에도 ‘현장형 VIP존’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아이와 함께 박람회를 구경하다보니 참여부스가 많아 너무 피곤하였는데 마침 엄마아빠 VIP존이라고 해서 와봤더니 정말 제가 VIP가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놀고 저는 뒤에서 잠시나마 쉴 수 있으니 너무 좋네요. 앞으로 이런 행사에 VIP존이 좀 더 많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남구 거주, C 씨)

- 현재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 한강공원, 어린이공원, 공공건물 등에 31개소 조성되어있는 ‘가족화장실’은 2026년까지 총 101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가족화장실’은 다채로운 색상의 외관으로 아이들 눈길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아이 체형에 맞춘 변기, 세면대, 거울 등 세심한 배려로 인해 인기를 얻고 있다.

# 평일엔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없어 주말마다 와이프가 집안일 할 때 저는 딸아이들을 데리고 집 앞 공원 공놀이하러 많이 가는데 아이들이 화장실 가고 싶을 때마다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어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북서울꿈의숲에 가족화장실이 설치된 이후 외출이 두렵지가 않아요. (강북구 거주 A 씨)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이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도시이며, 아이와의 외출이 불편한 일이 아닌 즐거운 경험이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양육자가 원하는 다양한 장소에 양육친화 공간을 더 많이 조성해서 양육자와 아이 모두 편하고 행복한 외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 「웰컴키즈 안심보험」출시



- 가입대상 | 서울시 소재 일반, 휴게음식점
- 가입비용 | 일반음식점 연간 **25,000원**으로 가입 가능  
(휴게음식점 **20,600원**)
- 보장범위 |



담 보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시설소유관리자	대인  1인당 <b>1,000만 원/1사고당 2,000만 원</b>	10만 원
	대물  1사고당 <b>500만 원</b>	10만 원
구내치료비 	대인  1인당 <b>100만 원/1사고당 100만 원</b>	없음

※ 종업원신체장해보장 특약 포함(1인당 **1,000만 원**, 1사고당 **2,000만 원**)

- 신청방법 | 한화손해보험 통해 가입

 서울특별시















방학동 도깨비 시장 내 '서울엄마아빠VIP존'



서울 월드컵경기장 내 '서울엄마아빠VIP존'



서울가족플라자 내 '서울엄마아빠VIP존'



현장형 '서울엄마아빠VIP존'



서울 북서울꿈의숲 내 '가족화장실'



한강공원 내 '가족화장실'

